

# 미국 와인의 전설 ‘스택스 립’… 대담하고 우아하게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우아한데 대담하다. 아니 반대다. 잘 익은 미국 나파밸리 카베르네 소비뇽의 대담함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우아하다. 포도송이를 한 입 가득 깨어문 듯 과즙이 가득하면서 절제되어 있고, 풍미는 섬세하면서 복합적이다. 50년 전 ‘파리의 심판’ 심사위원이든, 2020년대에 한 잔을 받아든 소비자든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여운은 길다. 지금 바로 마셔도, 10년쯤 뒀다 마셔도 좋겠다. 미국 나파밸리의 전설적인 와이너리 스택스 립 와인셀라의 카베르네 소비뇽이다.

스택스 립 와인셀라의 헤드 와인메이커 마커스 노트라는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와인의 스타일은 따로 구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포도밭의 특성과 잠재력을 가능한 드러내는 것”이라며 “스택스 립의 와인은 다양한 풍미가 복합적이며, 우아함과 구조감의 균형을 세련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부터 스택스 립의 와인메이킹을 맡고 있다.

1970년에 설립된 스택스 립은 초기엔 작은 가족 와이너리에 불과했다.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것은 1976년 그 유명



스택스 립 와인셀라의 헤드 와인메이커 마커스 노트라는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스택스 립의 S.L.V, 페이(FAY) 포도밭과 테루아, 양조 철학 등을 소개했다.

한 ‘파리의 심판’에서 우승을 하면서다. 설립 후 6년 만인 신생 와이너리가 3년 차에 만든 ‘S.L.V. 카베르네 소비뇽’ 1973 빈티지가 보르도 특급 와인인 ‘샤토 무통 로칠드’와 ‘샤토 오브리옹’을 모두 제쳤다. 이는 스택스 립 와인 셀라는 물론 미국 나파밸리를 세계 최고의 카베르네 소비뇽 산지로 만들었다. 당시 우승했던 S.L.V. 카베르네 소비뇽은 스미 소니언 박물관의 영구 소장품이자 ‘미국

을 만든 101가지’ 중 하나로 선정됐다. 스택스 립은 이탈리아 와인 명가 안티노리에 인수되면서 다시 한 번 이목이 집중됐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인수 작업은 올해 마무리를 지었다. 국내에서도 수입사 아영FBC가 스택스 립 와인을 공식 론칭했다. 이제 스택스 립의 전설적인 카베르네 소비뇽 열전이다.

먼저 ‘페이(FAY) 카베르네 소비뇽’



(위)레드 와인으로는 아르테미스 카베르네 소비뇽 2021, FAY 카베르네 소비뇽 2020 등, 화이트 와인으로는 ‘카리아 샤르도네 2023’, ‘아베타 소비뇽블랑 2023’ 등을 선보였다. /안상미 기자

과 ‘S.L.V. 카베르네 소비뇽’이다. 페이와 S.L.V는 같은 품종에 포도밭도 나란히 붙어 있지만 개성은 완전히 다르다. 페이가 우아한 숙녀라면 S.L.V는 진중한 신사다.

FAY 카베르네 소비뇽 2020은 붉은 과실과 장미 등 꽃향이 우아하고, 복합적인 풍미가 인상적이다. 2020 빈티지가 다른 해보다 좀 더 힘이 있다고 하는데도 부드럽고 향기롭다.

FAY는 스택스 립 디스트릭트에서는 처음으로 카베르네 소비뇽을 심었던 네이든 페이를 기리는 의미다. 이 지역은 나파밸리에서도 기후와 토양이 독특해 포도재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지만 네이든이 흙 속의 진주를 캐냈다. S.L.V. 카베르네 소비뇽 2020은 검은 과실과 흑연의 미네랄, 흙내음 등 강건하면서 복합적인 아로마가 특징이다. 페이보다 좀 더 구조감이 단단하고 진중한 스타일이다.

마지막은 ‘캐스크(CASK) 23 카베르네 소비뇽’이다. S.L.V와 페이 빈야드에서도 최상급 포도만을 선별해 만들었으니 소위 ‘끝판왕’인 셈이다. 그것도 포도 재배가 뛰어난 해에만 만든다.

CASK 23 카베르네 소비뇽 2021은 페이 포도밭의 향긋함과 S.L.V의 구조감, 과실미를 모두 가졌다. 블랙 체리와 삼나무, 향신료, 모카 등 복합적인 향이 겹겹이 펼쳐지며, 맛은 풍부하고 농축됐다. 부드러운 질감과 함께 여운이 한참을 이어진다.

아영FBC 관계자는 “스택스 립 와인 셀라는 단지 하나의 와인 브랜드가 아니라 미국 와인의 기원을 보여주는 정체성 그 자체”라며 “이번 론칭은 미국 프리미엄 와인 포트폴리오에 지속적으로 정성을 쏟은 결과이며, 국내 와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말했다.

/smahn1@metroseoul.co.kr

## 문화 단신



강서 대형 복합시설 ‘원그로브’ 개관

12일 서울 강서구 마곡 원그로브에서 ‘원그로브 그랜드 오픈’ 행사가 열리고 있다. 원그로브는 마곡지구 약 27만명의 지역민을 비롯해 마곡산업단지

단지와 기업 종사자들의 비즈니스와 휴식, 여가를 책임질 복합시설로 초대형 크기를 자랑한다.

/손진영 기자 son@

## 핑크퐁 아기상어, 싱가포르 간다… ‘키즈 팝콘 아시아’ 단독 초청

더핑크퐁컴퍼니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에서 열리는 ‘K!DZ POP CON ASIA 2025(이하 키즈 팝콘 아시아)’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 콘텐츠 기업으로는 유일한 공식 초청이다.

‘키즈팝콘아시아’는 디즈니, 니켈로디언, 크레올라 등 세계적인 캐릭터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키즈 패밀리 페스티벌이다. 올해 행사는 싱가포르의 대표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 샌즈 컨벤션 센터에서 오는 21일부터 22

일까지 열려, 글로벌 IP 업계 이목을 끌고 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K콘텐츠 대표 주자로서 이번 행사에 참가해, 대표 IP ‘핑크퐁 아기상어’ 1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가로 15m, 높이 5m 규모의 슬라이드 어드벤처를 포함해 캐슬 트램펄린, 어드벤처 보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 주말은 책과 함께

## ‘AI 윤리’ 경계를 묻는 안내서

판사가 흉악 범죄자에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분노하며 말한다. “판사들을 다 인공지능(AI)으로 바꿔야 한다”고. AI 판사는 인간 판사보다 더 공정할까. ‘도덕적인 AI’는 이러한 질문을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저자는 기술을 얼마나 낙관적으로 보든 간에 AI 시스템이 완벽하게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가능성은 (인간처럼) 거의 없다고 말한다. 책에 따르면 의료와 채용, 주택 용자, 사업자금 대출 등에 활용되는 AI는 흑인, 여성, 이민자, 빈곤층, 장애인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피부암을 탐지하는 AI는 어두운 피부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AI에 의존하는 의사들이 흑인 환자를 제때 진단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범죄 예측 AI는 취약 계층 출신 피고인의 보석 신청이나 재판 전 석방을 거부할 가능성이 더 크다.

‘지능적’이라고 칭송받는 AI가 이처럼 편향된 결과를 내는 까닭은 기술 창작자(인간)의 편향이 개입돼서라고 책은 분석한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라벨링할지, AI 모형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지, AI 알고리즘에 어떤 정보를 넣을지, 예측 결과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결정은 모두 인간의 손에 달렸다.

예를 들어 경찰이 특정 인종을 면밀히 감시해 해당 집단에서 더 많은 이들을 불균형적으로 체



도덕적인 AI

윌터 시넛윌스트롬, 제나 셰익 보그, 빈센트 코니처 지음  
박초월 옮김/김영사

포하면, 이를 학습한 AI 시스템이 소외된 인종 집단에 속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재범 위험도를 부여한다. 사회 구조와 경찰 수사 절차의 편향은 AI 학습용 데이터의 편향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AI 알고리즘이 특정한 취약계층 구성원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높은 재범 위험도를 예측하게 한다.

저자는 AI가 편향된 결과를 내는 이유는 인간이 편향된 데이터를 입력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먼저 ‘도덕 지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360쪽, 1만9800원.

/김현정 기자 hjk1@



▲배구 김연경·골프 정윤지, MBN 여성스포츠타상 4·5월 MVP

▲양키스 저지, 시즌 25호포 폭발…홈런 선두 시애틀 롤리와 1개 차

/사진 뉴시스

▲K리그1 강원, 홈 경기장 명칭 변경…‘강릉하이원아레나’

▲장애인체육회, 중국·일본 패럴림픽위원회와 M.OU 체결

▲‘파리 금메달’ 오예진·양지인, 사격월드컵서 은메달·동메달

▲국립중앙도서관, ‘구독 전자자원 박람회’ 개최…온·오프라인 동시 진행